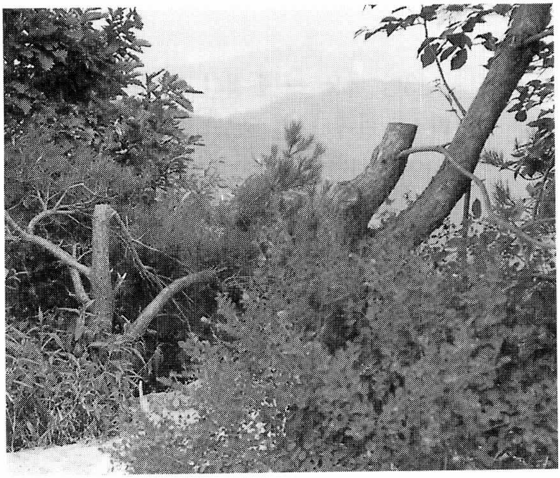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산신(山神)도 진노할 광신도들의 소나무 벌목 현장!!!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곳은 북한산 형제봉.

명산에 올라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지성을 들이는 것은 좋으나, 시야(視野)가 가린다고 이같이 소나무들을 마구 베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

홍수로 쓰러진 나무를 이용, 벤치 설치

북한산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 (소장 김영기) 는 지난 7월초 강우로 쓰러진 참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하여 등산로 주변에 벤치를 설치하여 탐방객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동부관리사무소는 쓰러진 나무를 등산로 중 비가 오기만 하면 질퍽해 지는 곳에 디딤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